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지형학

—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프로젝트〉의 자료를 중심으로 —

박 성 진*

국문초록

그동안 국내 학계는 2차 대전 이후의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사에 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으나,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는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 논문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문사철 및 전통 예술에 관한 약 2천 건의 DB를 기반으로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 동향을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했다. 먼저 필자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DB가 얼마만큼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북스 엔그램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만일 소규모 DB인 〈프로젝트〉 DB의 시계열적 변화패턴이 빅데이터 기반의 대조군의 시계열적 변화 패턴과 유사하다면 전자가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에 입각해서 몇 가지 도표를 비교해 본 결과, 〈프로젝트〉 DB와 빅데이터 DB의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패턴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곧 〈프로젝트〉 DB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DB를 통해 얻은 프랑스 학술계의 지형 변화와 시기에 따른 학술생산물의 산출량의 변화를 근거로 20세기 프랑스 동아시아학 연구사를 5분기로 시기 구분해 보았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프랑스어권 DB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학이나 한국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한편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은 전반적으로 동시대 연구에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고대로 갈수록 연구 성과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할 대상도 풍부하고 동시에 현안과 직결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중국학과 한국학에서는 현대와 대비되는 가까운 전근대 사회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일본학에서는 근대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분야 별로 살펴보면 먼저 철학 및 종교에서 인류학의 범주에 속한 연구가 풍부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전통이다. 한편 종교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불교 연구가 가장 많지만 연구 대상 지역에 따라 중점적으로 연구되는 종교가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학의 경우, 도교가 특히 많이 연구되었으며 한국학은 무속신앙이, 일본학에서는 불교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유교의 경우, 철학적 내용에 관한 연구보다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문학과 언어학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문학에 관한 연구가 언어학에 관한 연구보다 풍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언어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psjquina@live.co.kr

학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시아 언어학회지』에 대한 DB구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동아시아 언어학에 관한 연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다. 문학 작품에 관한 연구 중에는 소설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중국 문학에서는 송대를 기점으로 운문에서 산문으로 연구 주제가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편 소설에 관한 연구가 중국학에서 우세한 반면 시는 일본학에서 강세를 보였다. 역사학에서는 사상문화사에 관한 연구가 정치외교사, 사회경제사보다 풍부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중국사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현대사 연구가 가장 많은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일본사에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사와 사상사에 관한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마도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끌었던 동력에 대한 관심과 신문물 유입에 따른 전통 문화의 변용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예술 분야의 경우, 전통 회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고 시기적으로는 모두 마지막 전 근대 사회, 즉 명청 시대와 도쿠가와 막부 시대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예술이론에 속하는 연구는 대부분 화론에 관한 것들로서, 주로 명청대의 화론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동아시아학, DB 프로젝트, 프랑스, 빅데이터,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 목 차 |

I. 머리말 II. 대표성의 문제 : 〈구미 동아시아학〉 프로젝트의 프랑스어권 DB구축 과정 III. 집단 기억과 빅데이터를 통해 본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 연구 추세	IV.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사의 시기 구분, 전반적 양상 및 분야별 특징 V. 맺음말
---	---

I. 머리말

2013년 봄에 한국연구재단은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 이하 프로젝트〉을 공모하였다. 이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기초 토대팀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13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구미권 자료들을 DB화하였다.¹⁾ 국내에서 동아시아학에 관해서 이처럼 방대한 구미권 연구 성과들이 DB로 구축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구미권에서조차도 온라인상에 이 정도 규모의 DB 시스템이 구축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현재 구축된 DB 시스템은 구미 동아시아학을 주도하고 있는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프랑스어권 DB를 이용하여 20세기 이후 프랑스어권 동아시아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²⁾

1)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沈載勳, 「구미 동아시아학의 발전과 그 수용을 위한 한국판 DB 구축」, 『大同文化研究』, 87, 2014, 393~430쪽 참조.

2) 이 논문은 2016년 4월 22일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구미 동아시아학 연구의 궤적〉에서 발표되었던 「프랑스어권 동아

프랑스의 동아시아학은 17세기에 루이 14세가 당시 ‘황제의 수학자들’이라고 불렸던 예수회 소속 프랑스 어권 신부들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파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3세기 동안 프랑스는 지역학에 지나지 않았던 동아시아학을 인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연구하면서 구미권 동아시아학을 선도해 나갔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프랑스가 양대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구미 동아시아학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그동안 국내 학계는 주로 프랑스가 구미학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던 시기, 즉 18, 19세기의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들에는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어권의 동시대적 연구들에는 정작 무관심했다.³⁾ 18세기 독일의 대표적 오리엔탈리스트였던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년~1803년)가 썼던 유명한 비유를 빌려 말하면 한국 학계에서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 연구는 점점 “방부 처리된 미라”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20세기 후반 이후의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가 국내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들을 이 자리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또한 적절치도 않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동안 국내 동아시아학계가 지나치게 내부자적(emic) 관점에 서서 문제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외부자적(etic)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조망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이다.⁴⁾ 설령 외부자적 관점에 서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주로 영미권에서 생산된 연구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 경험주의적 실증주의, 행태주의(behavioralism)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⁵⁾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중국사를 전공으로 학위를 했던 극소수 연구자들은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들을 국내 학계에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해 왔다.⁶⁾ 이들의 연구사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되거나 단순한 개별 사실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프랑스의 동아시아학 연구사를 시기 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발표된 지가 오래되어서 최신 연구 성과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과 전적으로 중국학에 초점이 맞춰 있어 프랑스어권의 한국학과 일본학 현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적으로 정성 분석(定性分析, qualitative analysis)에 의존하다 보니, 논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DB시스템은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의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사를 보다 객관적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1900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프랑스어권의 문사철(文史哲)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全

시아학 연구의 궤적과 DB 구축 현황」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 3) 박성진,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여정,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 이해와 공존을 향한 오디세이아」, 『동양학』 64, 2016, 151~190쪽.
- 4) Marvin Harris,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EMIC/ETIC Distinc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5, pp. 329~350.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의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국미술사가 로버트 배글리(Robert Bagley)는 중국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화 당국자(cultural insider)”와 “문화 국외자(cultural outsider)”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沈載勳, 위의 논문, 2014, 419쪽에서 재인용.
- 5) 천광성·첸융상(저), 白池雲(역),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추세 속의 학술생산」, 『창작과비평』, 32, 2004, 117~139쪽; 홍성민, 「지식과 국제정치: 한국의 민주화와 학문의 과제」, 『지식과 국제정치』, 한울아카데미, 2008, 31쪽.
- 6) 李東潤, 「프랑스에 있어서의 東洋學의 발달」, 『프랑스인의 智慧』, 正音社, 1980, 200~294쪽; 趙載德, 「프랑스의 “東洋學” 發展에 關한 一考察」, 『仁荷史學』, 2, 1994, 145~169쪽; 朴尙洙, 「漢學에서 社會科學으로 - 프랑스의 근현대 중국사학」, 『中國學報』, 48, 2003, 395~413쪽.

數(調査)에 근접한 자료추출법을 통해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구축된 DB는 임의로 추출된 소수의 표본들로 구축된 DB보다 자료선택과정에서 오는 편파성(bias)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들은 문사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약 2천 건에 이르는 프랑스어권 문헌자료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定量分析, quantitative analysis)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로젝트〉의 프랑스어권 DB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축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 어떻게 자료들이 분류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려 한다. DB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또 그 선별 과정에서의 한계점들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숙지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제출된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시기 구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세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현대사의 전개 과정상에 발생한 사건들에 주목하여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연구사의 주요 분기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보다 세밀한 시기 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문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DB가 과연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동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를 검증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DB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해야 할 대조군(control group)을 찾아야 했다. 대조군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료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군이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면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규모 DB인 〈프로젝트〉 DB의 시계열적 변화 패턴(time sequential change pattern)이 빅데이터 기반의 대조군의 시계열적 변화 패턴과 유사하다면, 즉 ‘두 계열의 DB 간의 일치도(conformity degree)가 높다’면 전자가 후자에 의해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에 구글(google)에서 개발한 북스 엔그램뷰어(Books Ngram Viewer)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검증 수단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정 사물에 관한 관심도를 측정하고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문에서는 북스 엔그램뷰어를 사용하여 동아시아학 관련 용어들의 시계열적 사용량 변화를 측정한 도표와 〈프로젝트〉의 DB를 토대로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한 도표를 상호 비교하여 그 일치 정도를 근거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DB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본격적으로 DB를 이용하여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양상을 각 분야 별로 살펴보고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일반적 특징들을 결론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대표성의 문제 : 〈구미 동아시아학〉 프로젝트의 프랑스어권 DB구축 과정

1. 어떻게 자료들은 선정되었나?

DB 구축의 초창기에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어떤 자료를 선정하고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

다. 동아시아학 연구의 역사가 5백년이 넘는 프랑스어권의 자료를 단 3년 안에 모두 자료화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언어권 연구자들과의 토론 끝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출되었지만 연구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세기 이후 출간된 문헌들만을 DB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학술적 문헌들을 어떻게 대중서로부터 쏙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얼핏 보면 용이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 한·중·일 문사철 관련 논문 모두를 자료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프랑스어권에서 간행되는 단행본들 중에서 어떤 책을 학술도서로 보느냐’가 문제였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도서들을 모두 직접 읽어 볼 수 있다면 읽어보고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면 되겠지만, 한국의 여건상 절대 다수의 프랑스어권 단행본들을 직접 열람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소개된 도서들 중에서 관련 도서를 선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인터넷상으로는 해당 도서가 학술서적인지, 아니면 대중 서적인지를 판별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영어권의 경우, 저명 대학 도서관이나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서점에서 내용 소개, 전문가들의 평가, 독자들의 반응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서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어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차선책으로 동아시아학 전문 학술지의 서평란에 실린 서평을 기준으로 단행본들을 선정하여 자료화하기로 했다.⁷⁾ 전문 학술지에 소개될 정도라면 학술 도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간된 단행본들 중에는 서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들도 일부 있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나 국립학술연구센터(CNRS)의 출판부에서 간행된 도서들을 중심으로 자료화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 2월 28일 현재까지 단행본 573권, 논문 1,349편 등 총 1,922건이 DB로 구축되었다.⁸⁾

2. 어떻게 분류되었나?

선정된 자료는 해당 분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다시 지역에 따라, 분류한다. 그런데 선별된 자료들을 분류하는 타당한 기준을 정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구물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구미 학계의 특징적인 연구 풍토는 어느 특정 분야를 넘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제간(interdiscipline) 연구들은 온라인의 DB시스템에 설정된 여러 항목들 중에서 해당하는 분야는 모두 체크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주된 분야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주요 분야를 정해서 분석했다.

7) 한 종을 제외하고 프랑스어권 동아시아 관련 학술지들은 온라인상으로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서가 전문가들에게 평가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폐간된 서평 전문지, 『중국어학 비평(Revue Bibliographique de Sinologie)』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전공과 별 상관도 없는 자료를 찾아 보내주신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의 서인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어권 DB의 규모는 영어권 DB의 약 1/3 정도이다. 영어권 자료는 모두 6,080건(단행본: 1,883권+논문: 4,197편)이다. <http://ec2-52-78-36-41.ap-northeast-2.compute.amazonaws.com/>

시대 구분의 기준을 정하는 일도 그리 용이하지는 않았다.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진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처럼 사회 성격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자들이 나중에 이 DB를 가지고 후속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 지역의 상황을 쉽게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중국사의 고대와 한국사의 고대가 시간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성격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류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내 깨닫게 되었다. 결국 해당 지역의 학술 관행에 근거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우, 왕조에 따라 시대를 구분했고 일본은 사회 성격에 따라 시대를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을 한정하는 작업도 명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티베트에 대한 연구는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외해야만 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연구가 티베트와 중국의 영토 분쟁에 관한 글이라면 이 자료를 DB에 포함시켜야 할지 제외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어권 DB의 경우, 비록 지리적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한·중·일 3개국과 관련 있을 경우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 논총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사철을 다루는 단행본들도 일부 있었다. 이 경우는 동아시아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해서 그에 속하는 자료로 분류했다.

3. DB의 대표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인문·사회 과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다루는 자료들이 객관성 내지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취사선택된 자료는 아닌지, 또는 해당 자료가 보편적 현상이 아닌 특수하거나, 예외적 현상을 반영하는 자료인지 검토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에 구축된 DB가 과연 지난 100여 년간의 프랑스의 동아시아학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DB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프랑스어권의 DB는 거의 전수 조사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처럼 프랑스어권 DB가 전수 조사에 가까웠던 이유는 간단하다.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들이 영미권에 비해 양적으로 적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1900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어권에서 발표된 동아시아학 자료들을 거의 모두 망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구축된 프랑스어권 DB는 일단 20세기와 21세기 초까지의 프랑스 동아시아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프랑스어권 DB가 전수 조사에 근사하더라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보다 온전한 전수 조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데, 그 원인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행본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학술지에 서평이 실린 관련 도서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들이라도 프랑스어권 학술지에 서평이 게재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연구 성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⁹⁾ 예를 들어,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1878년부터 1924년까지 출간된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가 펴낸 『중국학서지(中國學書誌, *Bibliotheca Sinica*)』 시리즈

가 20세기 전반기의 대표적 서지목록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프랑스어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서는 『중국어학서지』에 대한 서평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선정 기준에 따르면 이번 DB 구축에서 그의 저서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학서지』는 비록 서평이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요 도서라는 사실에 명확하기에 DB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어학서지』보다 알려지지 않은 학술 서적들이 DB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필자의 지식의 한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이며 동시에 직접 책을 열람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약이다.

논문의 경우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전수 조사가 될 수 없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제약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적 한계 속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대한 논문 자료를 DB화 하려했으나, 예상보다 논문의 DB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프로젝트> 당초 계획은 『아시아학회지(*Journal Asiatique*)』와 『通報(T'oung Pao)』 등에 게재된 논문들을 DB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시간 부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아시아학회지』는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한중일 세 지역을 다루는 논문이 많지 않아, 다른 전문 학술지에게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通報』는 프랑스어권 논문만 게재하는 학술지가 아닌데다가, 최근 프랑스어권 논문이 그리 많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 두 학술지를 DB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이 두 학술지에 대한 DB가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논문 구독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에서 간행되는 학술지들은 대부분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¹⁰⁾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 간행된 연구 성과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따로 지불하여야만 한다. 조사해 본 바로는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 해당 학술지 인쇄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경우는 전무하였고 국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JSTOR같은 영어권의 사설 전자저널 도서관을 통해서 DB 구축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표 1>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된 프랑스어권 학술지 10종과 DB화된 논문들이 간행된 연도, DB화된 논문의 편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¹¹⁾ 이 표에서 DB화된 자료는 모두 온라인상에 무료로 제공된 논문들인데, 학술지들이 최근호는 대부분 유료구독이기 때문에 DB화하지 못했다. 역으로 『지팡구(*CIPANGO*)』는 최신호는 PDF파일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었지만 옛 간행물은 오히려 구하기 어려워 작업이 중단하게 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DB화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동아시아 언어학회지(*Cahiers de linguistique-Asie orientale*)』는 아시아 지역 언어학에 관한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간행되는 유서 깊은 학술지로서, 언어학적 지식이 부족한 필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스스로 DB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축된 DB는 전수 조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계량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0세기 프랑스 동아시아 학계의 전반적 양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9) 영어권 학술지에 프랑스어권 단행본에 관한 서평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누락된 단행본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프랑스에서 인문·사회과학 연구논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검색엔진 중에서 특히 페르세우스(persée)이 대표적이다. 이번 <프로젝트>도 주로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자료들을 검색하였다. <http://www.persée.fr/>

11) 학술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성진, 앞의 글, 2016, 171~173쪽 참조.

보긴 어렵다. 하지만 구축된 DB가 완벽한 전수 조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 1천 5백편 정도로 추정되는 프랑스어권 논문 자료 중에서 약 90%의 논문들이 DB화되어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 얻은 결과들은 프랑스 동아시아 학계의 동향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아시아학회지』와 『通報』가 종합 학술지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일본학 전문 학술지인 『지팡구』와 동아시아 언어학 전문 학술지인 『동아시아 언어학회지』는 일본학과 언어학에 관한 학술지이므로 향후 이 두 종의 DB화가 완료된다면 이번 분석 보다 일본학과 언어학의 연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DB화된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지 목록과 작업의 완료여부

저널명 (약어)	창간연도	DB화 된 논문의 기간	작업 편수
<i>Arts asiatiques</i> (AA)	1965	1965~2009	107(완)
<i>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i> (BEFEO)	1901	1901~2005	149(완)
<i>Cahiers de linguistique-Asie orientale</i> (CLAO)	1941	2003~2007	14(미완)
<i>Cahiers d'Extrême-Asie</i> (CEA)	1985	2005~1985	162(완)
<i>CIPANGO</i> (CIPANGO)	1993	2014~2008	40(미완)
<i>Ebisu - Études Japonaises</i> (Ebisu)	1993	2011~1993	180(완)
<i>Etudes Chinoises</i> (EC)	1982	2001~1982	196(완)
<i>Extrême-Orient, Extrême-Occident</i> (EOEO)	1982	2007~1982	188(완)
<i>Impressions d'Extrême-Orient</i> (IEO)	2010	2016~2010	72(완)
<i>Perspectives chinoises</i> (PC)	1992	2004~1992	241(완)
총계			1,349편

Ⅲ. 집단 기억과 빅데이터를 통해 본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 연구 추세

한 사회의 과거관이나 고유의 정체성에는 그 구성원들의 집단 기억 또는 집합 기억(mémoire collective, collective memory)이 중요한 요소를 이루면서 정체성의 형성·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¹²⁾ 즉 기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2) “기억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에서 집단 기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1877~1945년)이다. 1925년에 출간된 그의 『기억의 사회적 틀들(Cadres sociaux de la mémoire)』은 기억의 사회성에 관해서 최초로 논한 저서로서, 오랫동안 망각되었다가, 1990년대 초부터 다시 주목받았다.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연구」, 『사회과학연구』, 6, 1999, 558쪽.

사회는 기억의 근거를 제공하며, 개인에게 특정한 사안을 기억하도록 하고, 또 어떤 것을 망각하게 한다. 게다가 사회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건도 기억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기억은 모든 과거 경험을 온전히 간직한 보관소로 환원될 수 없다. 기억은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일반화한 '심상(心象, mentalité)' 또는 집단 기억으로 전화된다.¹³⁾ 하지만 문제는 집단 기억 또는 심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점 때문에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과학적 연구의 시야 밖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¹⁴⁾ 하지만 최근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집단 기억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가 바로 그것이다.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¹⁵⁾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분석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학문 간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연구 분야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길을 열어가고 있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인문학과 정보기술 분야도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인문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 세상에 공개된 구글(Google)의 북스 엔그램뷰어는 빅데이터의 응용 분야를 인문학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분석 도구이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는 1800년부터 2012년까지 출간된 책들 중에서 디지털화한 3,000만 권을 다시 선별해서 800만 권(약 8,000억 개의 단어)을 기반으로 방대한 DB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엔그램 뷰어는 그 키워드의 사용 빈도를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¹⁶⁾ 800만 권의 도서를 분석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1520년부터 2012년까지 근 500년 동안 사용되었던 특정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롱데이터(long data)라고도 할 수 있다.¹⁷⁾ 엔그램 뷰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권 출판 도서들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국립도서관(BNF) 다음으로 많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리옹 시립도서관(bibliothèque municipale de Lyon)이 구글과 2008년에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10년 동안 최대 50만 권에 달하는 프랑스어권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¹⁸⁾ 영어권 자료에는 훨씬

13)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3쪽.

14) 에레즈 에이든·장바티스트 미셸(지), 김재중(역), 『빅데이터 인문학』, 사계절, 2013, 186쪽.

15) 정용찬,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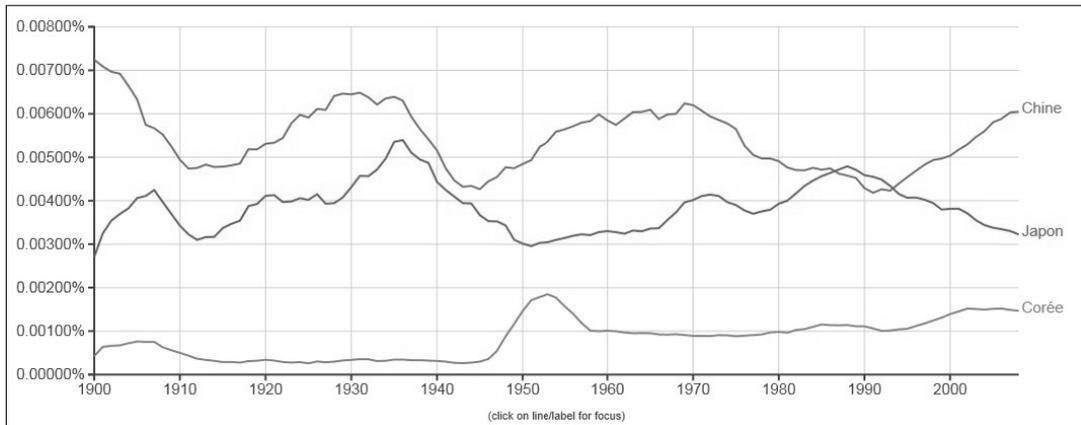
16) 문상호, 「엔그램 뷰어를 이용한 인문학의 빅데이터 사례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 6, 2015, 58~59쪽; 에레즈 에이든·장바티스트 미셸(지), 김재중(역), 앞의 책, 2013, 25~35쪽.

17) 에레즈 에이든·장바티스트 미셸(지), 김재중(역), 위의 책, 2013, 27~29쪽.

18) 리옹 시립도서관은 현재 약 130만에 달하는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다. 필자는 구글과 리옹 시립도서관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얼마 만큼의 프랑스어권 도서들이 디지털화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목표치의 절반 이상인 20만권 정도는 DB로 구축되었다고 추정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측은 다른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국립도서관들과의 협력 하에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디지털도서관, <Europeanna>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Rouillon, Vincent, "Google et les bibliothèques", *Complément de la Lettre d'Echanges*, 25, 2009, pp.1~3.

못 미치지만 프랑스어권 자료도 어느 정도 빅데이터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 프랑스어권에서도 특정 단어의 시대별 변천사를 가늠할 수 되었다.¹⁹⁾

그럼 북스 엔그램뷰어를 가지고 지난 백년 간 프랑스어권에서 시대에 따른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를 측정해 보도록 하자. 먼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부터 엔그램 뷰어에 입력해 보았다. 대중들에게 아마 가장 친숙한 단어는 국가명 또는 지역명일 것이다. 프랑스어로 한국(Corée), 중국(Chine), 일본(Japon)을 입력하면 프랑스어 문헌 자료들에서 이 세 단어의 빈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만일 사용 빈도의 변화량과 20세기 동안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북스 엔그램뷰어의 결과는 과거 100년간의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에 관한 집단기억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도표 1>은 지난 20세기 동안 프랑스어권 문헌 자료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키워드가 출현하는 빈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도표로서, 여기서는 ‘한국’이라는 키워드의 빈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표 1>에서 ‘한국(Corée)’이라는 키워드는 을사조약(1905년) 이후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감소하다가, 해방(194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전쟁 기간에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은 다시 하강곡면을 보이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소강 상태가 지속된다. 한편 군사정권이 끝나는 문민정부 시대, 즉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다시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아마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질서 속에 고도성장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프랑스어권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프랑스어권 문헌 속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키워드에 비해 사용량이 적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추세



<도표 1> 북스 엔그램뷰어를 통해 본 20세기 한중일 3국의 인지도 변화

19) 사실 프랑스에는 이미 엔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했다. FRANTEXT라는 인문학 DB시스템이 이미 1970년부터 존재해 왔고 1998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DB의 대상이 주로 문학 작품이라는 점과 약 4천 권으로 그 규모가 작다는 점 때문에 이번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FRANTEXT를 이용하여 1600년부터 1999년까지 프랑스문헌 속에 등장하는 ‘한국’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프랑스사회에서의 ‘한국’이란 단어가 주었던 의미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노시훈, 「프랑스 문헌에 나타난 한국(1600~1999)」, 『한국프랑스학논집』 27, 1999, 545~558쪽.

를 볼 때 프랑스어권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한국의 중대 사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Chine),’ ‘일본(Japon)’ 같은 키워드는 ‘한국’에 비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일례로 신해 혁명이 발발했던 1911년에 오히려 프랑스 문헌들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떨어진 현상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이라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중일전쟁(1937년)에서 정점에 올랐다가 2차 대전 중(1939년)에 감소한다는 현상은 납득될 만하다. 이 점에 대해서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빅데이터가 과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집단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없을 듯하다. 그럼 일상용어가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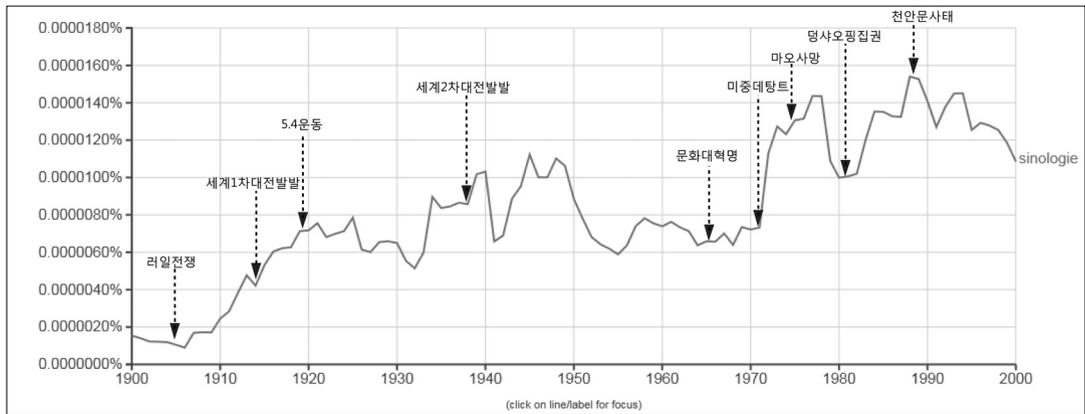
프랑스어에서는 중국의 문명, 언어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sinologie’라고 한다.²⁰⁾ 그리고 한국어에서도 ‘중국학’이란 용어가 일상 용어가 아니듯이, ‘sinologie’는 일종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대중용 도서보다는 이른바 학술 도서들이나 논문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계의 동향을 살피려고 ‘중국학(sinologie)’이란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 ‘중국학’이라는 키워드는 앞서 봤던 지명보다 주요 사건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어는 중일전쟁(1937년), 미중 데탕트(1972년), 마오쩌둥(毛澤東 : 1893년~1976년)의 죽음, 천안문 사태(1989년)처럼 중국의 중대 사건들이 발생하던 시기에 사용량이 급증했다. 반대로 문화 대혁명(1966년~1976년) 또는 마오의 죽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 1904년~1997년)의 집권(1976년~1981년) 전까지 중국이 폐쇄적이었던 기간에는 정체되거나 급감했다.²¹⁾ 이처럼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보다 역사적 주요 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 용어에 집단 기억의 잔상(殘像)이 더 실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곧 북스 엔그램뷰어에 일상 용어보다는 전문 용어를 입력했을 때, 더 높은 해상도와 신뢰도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학’이라는 키워드는 중국 내의 정치군사적 변화에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내 상황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도표 2>를 보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직후에 ‘중국학’이라는 키워드의 사용 빈도수가 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중국학’이라는 키워드의 사용 빈도의 낙차 폭이 2차 대전 발발 직후가 1차 대전 발발 직후보다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낙폭이 큰 원인을 필자는 연구 대상인 중국 내의 정세변화보다 연구 주체, 즉 프랑스의 연구 환경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진 대로 유럽에서 1차 대전은 연합국과 동맹국 간에 서부 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루한 참호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비록 전시이긴 하지만 동아시아학 연구의 중심지인 파리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²²⁾ 그러나 2차 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면전 또는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되

20) 독일어, 화란어, 루마니아어 등에서도 중국학을 ‘sinologie’라고 표기하지만 북스 엔그램뷰어에는 언어권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어에서 일본학을 간혹 Japanologie라고 표기하기도 하지만 études japonaises이란 용어가 더 일반적이다. 한국학은 études coréennes라고 한다.

21) 문화혁명에서 덩샤오핑 집권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알랭 루(저), 정철웅(역), 『20세기 중국사: 제국의 몰락에서 강대국의 탄생까지』, 책과 함께, 2007, 207~255쪽과 마리-클레르 베르베르(저), 박상수(역), 『중국현대사: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삼산, 2009, 183~277쪽 참조.

있고 심지어 파리는 독일군에 점령당하기까지 하였다. 점령군은 프랑스 내의 반독일 레지스탕스 운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시(Vichy) 정부를 세웠지만 오히려 레지스탕스 운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 시기 프랑스의 동아시아학 쇠퇴와 관련하여 레지스탕스 운동의 핵심 지대가 리옹(Lyon)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학 연구에 있어서 리옹은 파리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유서 깊은 도시였지만 레지스탕스운동의 중심부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학 연구가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2차 대전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학계의 중국학을 거의 절멸할 지경으로까지 몰아갔다.



〈도표 2〉 북스 엔그램뷰어를 통해 본 프랑스어권에서의 20세기 중국학 인지도 변화

IV.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사의 시기 구분, 전반적 양상 및 분야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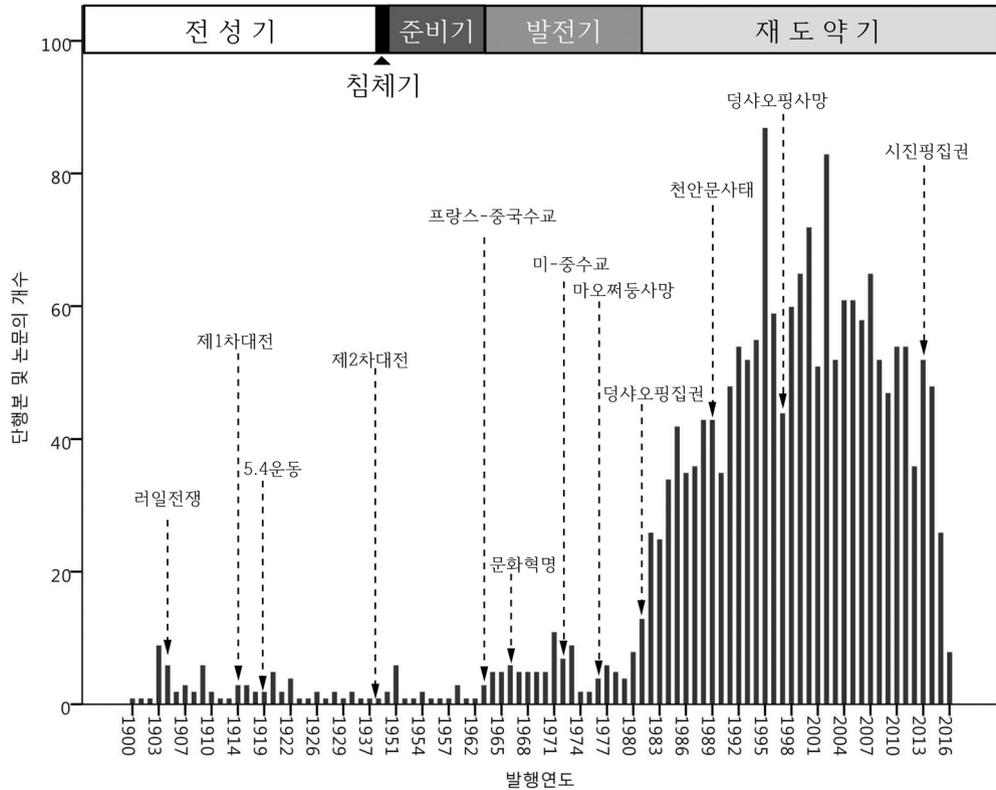
프로젝트 DB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양적 분석은 20세기 이후 프랑스어권 DB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질적 접근은 계량화되기 어려운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독특한 특색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하지만 지면상 제약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고 추후에 다른 지면을 통해 정성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1. 빅데이터 DB와 〈프로젝트〉 DB 간의 일치도 검증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DB도 북스 엔그램뷰어에서 본 대로, 세계적 차원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22) 버나드 로 몽고메리(저), 송영조(역), 『전쟁의 역사』, 책세상, 2004, 771~916쪽.

반응할 것인가? 동아시아학 관련 서적과 논문이 집필되고 출간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데이터의 패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서 실시했던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프랑수어권의 학술 성과물 간에 어떤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계열이 다른 DB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상호 검증해 보자는 의도이다. 만약 앞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했던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프로젝트 DB에서도 관찰된다면, 즉 두 DB 간에 일치도가 높으면 두 DB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3> 역사적 주요 사건과 학술 성과물 간의 상관관계

<도표 3>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DB도 빅데이터 DB의 그래프와 큰 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아시아학 연구의 생산량이 1,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동아시아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감소하고 미-중 데탕트나 당샤오핑의 집권처럼 중국이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했던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두 DB는 전반적으로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한 해에 1~2건 정도 발표될 정도로 저조했던 프랑스어권의 중국학 연구 성과가 1964년도를 기점으로 4~5건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도표 3). 1964년은 중국과 프랑스 간의 국교정상화(1월 27일)가 이뤄졌던 해로서, 아마도 이와 같은 국제 정세 변화가 프랑스 내 중국학연구를 촉진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²³⁾

한편 마오쩌둥 집권 말기인 1974년, 1975년에 약간의 소강기를 거쳐, 개방 정책을 추구하였던 덩샤오핑이 집권했던 1982년부터는 매년 평균 30~40편 정도의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물이 생산될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아시아학 연구가 활력을 되찾은 데에는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학계 내적 성숙도 또한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1982년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간행되었던 동아시아 학술지들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라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역사적·외교적 이유 때문에 주로 인도차이나 지역 연구에 다소 경도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1982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학 연구가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서구에 다시 문호를 개방하는 바로 그 해에 중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 두 종이 동시에 창간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漢學研究(Etudes Chinoises)』와 『극동-극서(Extrême-Orient, Extrême-Occident)』가 바로 그것이다. 드디어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학의 메카로서 역할을 했던 프랑스가 오랜 침체를 딛고 일어나 비로소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즉 동아시아학 전문지 창간은 프랑스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한 디딤돌이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서 중국학을 중심으로 20세기 동안의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 연구사를 학사적으로 시기 구분해 보면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뉜다.²⁴⁾ 첫 번째 시기는 프랑스 중국학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제 I 기)로서, 1901년부터 2차 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단연 두각을 보인 학자는 에두아르드 샤반느(Émmanuel-Édouard Chavannes)와 소위 '파리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던 그의 제자들, 즉 폴 펠리오(Paul Pelliot),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ero),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 등이다. 이들은 장-피에르 아벨-레무자(Jean-Pierre Abel-Rémusat) 이래, '19세기 학술적 중국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파리를 중국학의 메카로 만들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이 모든 기반을 잿더미로 만들었다.²⁵⁾ 특히 제2차 대전 기간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했다. 이 때 프랑스 중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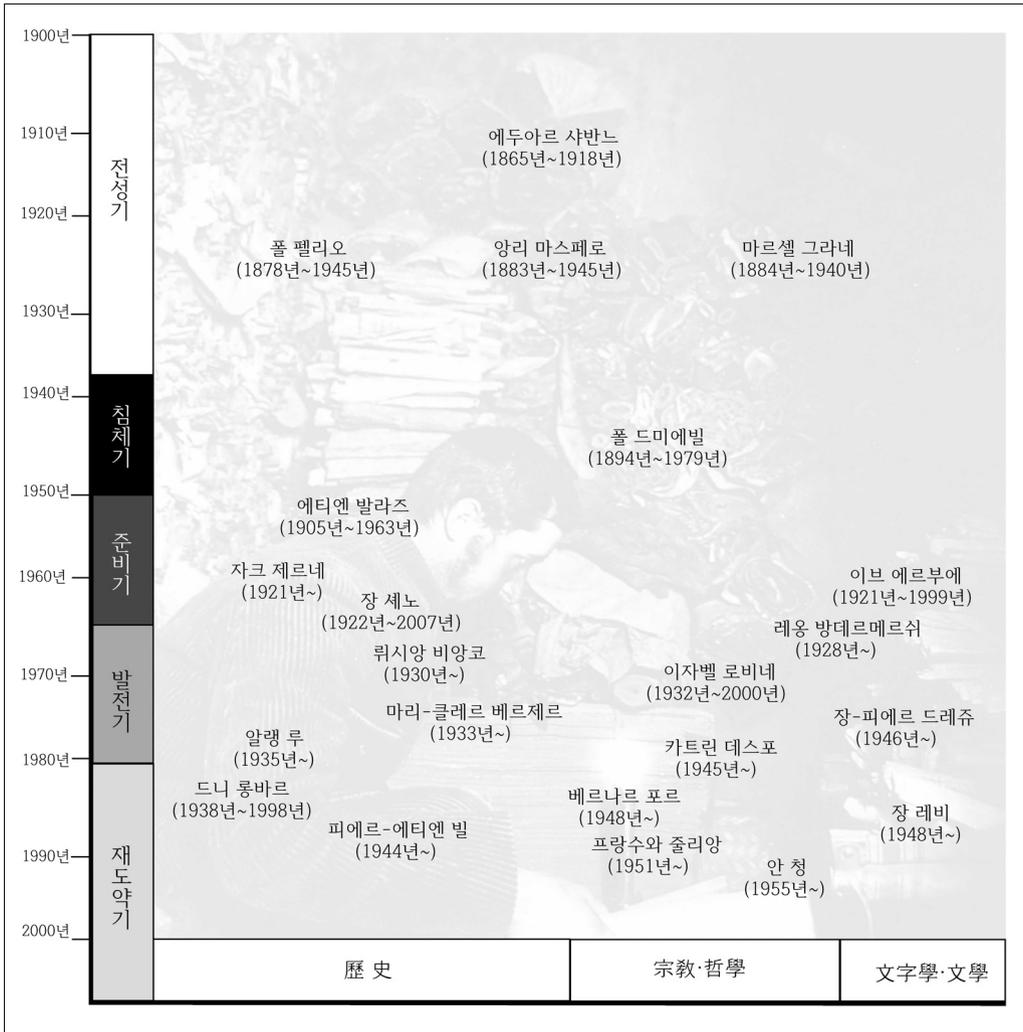
23) 알랭 루(저), 정철용(역), 앞의 책, 2007, 211쪽.

24) 여기서 중국학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을 시도하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프랑스어권에서 한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중국학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

25) 프랑스 중국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파리의 삼위일체 중에서 마르셀 그라네는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고 폴 펠리오와 앙리 마스페로는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에 사망한다. 이밖에 중앙아시아학의 권위자로서, 기메박물관 관장이었던 르네 그루세(René Grousset : 1885년~1952년)도 종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趙載德, 앞의 논문, 1994, 166쪽; Diény, Jean-Pierre, "Paul Demiéville(1894~1979)",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4e section, sciences historiques et philologiques, Livret 2, Rapports sur les conférences des années 1981~1982 et 1982~1983, 1985*;

의 물질·인적 토대를 무너졌으며 학맥도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프랑스 중국학의 명성을 이어왔던 학자들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 시기는 프랑스 인문학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서, 동아시아학의 ‘침체기(제Ⅱ기)’였다.

이처럼 종전 이후 명망 있는 연구자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도 프랑스 중국학을 구한 이들은 이방인이었다. 스위스 출신의 불교 연구자인 폴 드미에빌(Paul Demiéville)과 헝가리 출신의 경제사학자인 에티엔



<도면 4>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시기구분 및 주요 연구자들

Paul-David, Madeleine, "Paul Demiéville", *Arts asiatiques* 36, 1981, pp.67~68.

발라즈(Étienne Balazs)가 바로 그들이다.²⁶⁾ 이들이 1945년부터 프랑스와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는 1964년까지 후진 양성에 전력을 다했다(제Ⅲ기). 연구사적으로 이 시기는 고사 직전의 프랑스 동아시아학이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 그 토대를 다지던 일종의 ‘준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역사학의 자크 제르네(Jacques Gernet), 고전문학의 이브 에르부예(Yves Hervouet), 장-피에르 디에니(Jean-Pierre Diény), 문자학의 레옹 방데르메르쉬(Léon Vandermeersch) 등이 그들에게 사사받은 학자들이다. 제Ⅳ기(발전기)는 1964년 프랑스-중국 국교 정상화로부터 1982년까지로 중국학의 저변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때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최근까지 각 분야에서 중핵을 담당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학계에서 은퇴했으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학위를 받고 제Ⅴ기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학자들을 몇 명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 및 철학계는 이자벨 로비네(Isabelle Robinet), 카트린 데스포(Catherine Despeux),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프랑수와 줄리앙(François Jullien), 안 청(Anne Cheng) 등이, 고문자학 및 고전문학계는 장-피에르 드레쥬(Jean-Pierre Drège), 장 레비(Jean Levi) 비비안 알통(Viviane Alleton) 등이, 역사학계는 루시앙 비앙코(Lucien Bianco), 마리-클레르 베르제르(Marie-Claire Bergère), 알랭 루(Alain Roux), 드니 롬바르(Denys Lombard), 피에르-에티엔 빌(Pierre-Étienne Will) 등이 있다(도면 4).

제Ⅵ기, 즉 재도약기는 198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 3개국 인문학에 관한 학술 성과들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문 학술지가 창간되어 연간 50~60편 정도의 연구 성과물을 낼 정도로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이처럼 80년대와 9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 동아시아학계가 양적 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중국학의 성장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본학의 약진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 프랑스학계에서 오랫동안 일본학은 중국학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1993년에 일본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가 파리와 도쿄에서 각각 창간되면서 프랑스어권에서도 일본학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도표 3). 이처럼 중국학과 일본학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해당 지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의 창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학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 프랑스어권에서 한국학이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양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의 전반적 패턴

먼저 190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한·중·일 3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시아학에서 해당 지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곧 프랑스어권 내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지시해 주는 시금석이다. 분석 결과, 중국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7%를 차지하여 일본(24%), 한국(3.3%)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²⁷⁾ 비교할만한 영어권과

26)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의 티베트학과 중국학을 주도한 롤프 스타인(Rolf Stein : 1911년~1999년)도 독일(현재는 폴란드령) 출신 유대인으로서, 1939년부터 프랑스에 귀화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독어권 DB에 대한 통계값을 없어서 단언하기 힘들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영어권 DB의 통계값도 전반적으로 프랑스어권과 매우 유사하였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DB화된 영어권 자료는 총 6,080 건이다. 이 중에서 중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69.9%이고 일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1.4%, 한국학이 7.2% 그리고 기타는 1.5%이었다.²⁸⁾ 비록 <프로젝트>의 영어권 DB의 표본 추출 과정이 무작위적이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동아시아학 연구가 주로 중국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영어권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 덕분인지 프랑스어권보다 한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더 높았지만 영어권에서도 한국학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관계 당국과 학계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특정 시대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한·중·일 모두 전반적으로 현대와 가까운 시기를 더 많이 연구하고 고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료가 풍부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직결되어 있는 시대에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은 비단 프랑스어권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학에서는 선사(1%), 선진(5.5%), 진한(4.3%), 위진남북조(4.2%)를 다루는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연구에 15%에 지나지 않았고 한국학에서도 선사 시대부터 보통 중세 시대로 보는 고려 시대까지 다루는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11.6%에 불과했다. 반면에 일본학은 고대(9.1%)와 중세(11.9%)에 관한 연구가 21.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한국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중세 이전 시대에 관한 연구가 풍부한 편이었다. 각 지역에서 중세 이후 선호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펴보면 지역차가 나타난다는 현상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중국학의 경우, 현대(31.4%)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마지막 전통사회인 명청 시대(16.3%)였다. 한국학도 중국과 유사하게 현대(22.1%)에 대한 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23.3%)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긴박하게 돌아갔던 한중 양국의 현대사와 이에 대비되는 마지막 전근대사회에 프랑스 학계의 관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추정될 뿐이다. 반면에 일본학은 중국학, 한국학과는 달리 근대에 관한 연구가 가장 풍부하다. 근대(36.2%)에 관한 연구가 근세, 즉 에도 시대에 관한 연구(15.2%)나 현대에 대한 연구(15.6%)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정도이다. 아마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동아시아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역사 관련 연구가 38.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철학 및 종교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연구가 28.6%로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세 번째는 언어학과 문학에 관련된 연구(19.7%)이었고 예술 분야에 관련된 연구는 10.1%, 기타가 3.5%였다.²⁹⁾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동아시아 언어학회지』와 『지팡구』 게재 논문의 다수가 DB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

27) 나머지 2%는 동아시아 전체에 관한 연구(1.6%)와 기타 지역에 대한 연구(0.4%)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동아시아’라는 항목은 한·중·일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하는 연구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논총’에서 많이 나타난다. 한편 ‘기타 지역’이란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뛰어 넘는 지역, 즉 유럽과 미국 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문화 연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범주이다.

28) <http://ec2-52-78-36-41.ap-northeast-2.compute.amazonaws.com/>

29) 분야에서 ‘기타’의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는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문헌 목록집 같은 도서들이다.

에, 만일 이 두 종의 학술지에 대한 DB가 완성된다면 언어학 및 문학 분야와 일본학 관련된 연구들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상 지역에 따라 관심 분야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으나, 그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중·일 모두 역사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럼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분야 별 특징

(1) 철학 및 종교 분야

철학 및 종교 관련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단행본이 115권, 논문 435편 등 모두 550건의 연구 성과들이 DB화되었다. 철학 및 종교 분야에는 많은 분과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민간신앙(7.8%), 유교(8.9%), 불교(16.7%), 도교(14.9%), 기독교(1.8%), 신도(神道, 0.5%), 서학 및 서구사상(0.9%), 민속학(2.2%), 인류학(17.6%), 문화학(2.9%), 종교 및 사상 일반(22.4%), 기타(2.2%) 등이다.³⁰⁾ 이번 조사에서 종교 및 사상 일반이란 다소 폭 넓은 범주로 묶인 연구들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유교, 불교, 도교 등 기존의 동아시아 사상 분류 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는 보다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거나, 아니면 역으로 동아시아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다룬 연구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인의 천문학적 우주관, 현대 중국의 국학(國學)을 둘러싼 사상 논쟁, 유추(類推) 문제, 1980년대 일본의 일본인론(日本人論), 오명점술(烏鳴占術)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다. 한편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에는 '인류학'에 속하는 연구가 풍부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런 경향은 마르셀 그라네 이후 지금까지 계승되어온 프랑스어권 연구의 지역적 전통이다.³¹⁾ 유불선 등 전통 종교 사상들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불교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선호되는 종교 사상이 다르게 나타나 흥미롭다 <표 3>.

30) 이 중에서 '민간신앙'과 '도교' 간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나, 내용상 도교에 더 가까우면 '도교'로 분류하고 '민간신앙'에 더 가까우면 '민간신앙'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유사 분야 중첩 문제는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타 종교 및 사상 일반'이란 유불선 및 기독교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 즉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등과 같은 중동 지역 종교들에 관한 연구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문화학(Cultural Studies)'은 프랑스에서는 생소한 분야인데, 원래 20세기 초 독일에서 개념화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에서 1960년대부터 활성화된 분야이다. 최근 프랑스어권인 퀘벡이나 홍콩 등 영어권에 연고를 둔 학회에서 가끔 문화학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원승룡, 「문화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현대 문화학의 발생과 전망」, 『범한철학』, 39, 2005, 79~107쪽.

31) 마르셀 그라네는 중국 역사학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인류학, 신화학에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李東潤, 위의 책, 1980년, 285~286쪽; Hirsch, Thomas, "Historiographie et histoire disciplinaire. Marcel Granet et les sciences sociales", *L'Atelier du Centre de recherches historiques* 7, 2011, <http://acrh.revues.org/3579>(검색일: 2016. 3. 2); 프랑스 역사학계와 인접 학문 간의 긴밀한 교류에 관해서는 정철웅, 「역사 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과제」, 『현상과 인식』, 72, 1997, 99쪽; Revel Jaques(지), 주경철(역), 「역사와 사회과학: 불안정한 만남(L'Histoire et les Sciences Sociales : une confrontation instable)」, 『西洋史研究』, 15, 177~190쪽 참조.

〈표 2〉 지역별로 선호되었던 철학 및 종교의 세부 분야

철학종교분야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총계
민간신앙	30(5.5%)	7(1.3%)	5(0.9%)	1(0.2%)	43(7.9%)
유교	41(7.5%)	1(0.2%)	7(1.3%)	0(0%)	49(9%)
불교	45(8.3%)	2(0.4%)	41(7.5%)	4(0.7%)	92(16.9%)
도교	81(14.9%)	0(0%)	1(0.2%)	0(0%)	82(15.1%)
기독교	9(1.7%)	0(0%)	1(0.2%)	0(0%)	10(1.8%)
신도	0(0%)	0(0%)	3(0.6%)	0(0%)	3(0.6%)
서학	3(6%)	0(0%)	2(0.4%)	0(0%)	5(0.9%)
민속	2(0.4%)	1(0.2%)	9(1.7%)	0(0%)	12(2.2%)
인류학	69(12.7%)	2(0.4%)	25(4.6%)	1(0.2%)	97(17.8%)
문화학	11(2%)	0(0%)	5(0.9%)	0(0%)	16(2.9%)
종교 사상일반	93(17.1%)	1(0.2%)	26(4.8%)	3(0.6%)	123(22.6%)
기타	11(2%)	0(0%)	1(0.2%)	0(0%)	12(2.2%)
총계	395(72.6%)	14(2.6%)	126(23.2%)	9(1.7%)	544(100%)

중국학에서는 도교에 관한 연구가 유교나 불교에 관한 연구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단 한 편의 논문만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중국학에서 도교에 대한 연구가 풍부한 이유는 중국인들의 심적 구조는 도교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프랑스 중국학의 고유한 지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³²⁾ 이 전통은 20세기 초반 앙리 마스페로와 마르셀 그라네 등의 선각자들로부터 전승된 것으로, 현재도 도교는 프랑스어권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³³⁾ 한편 일본의 경우, 도교, 유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고유 종교인 신도(神道)보다도 불교에 관한 연구 성과가 월등히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한국학에서는 양적으로 적기 하지만 민간 신앙에 해당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민간신앙에 관한 연구는 모두 무속 신앙이나 그 의례 행위인 굿에 관한 연구들로서, 한국 고유의 신앙 체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20세기 프랑스 동아시아학계는 대체로 중국학에서는 도교, 일본학에서는 불교 그리고 한국학에서는 무속 신앙을 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경우, 유교 자체의 교리를 다루는 연구가 소수 있지만 유교의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신도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2) 김대열, 「서구의 최근 도교 연구 산책」, 『종교문화비평』 4, 2003, 187~222쪽; 박성진, 앞의 논문, 15~16쪽.

33) Seidel Anna, "Taoïisme : Religion non-officielle de la Chine", *Cahiers d'Extrême-Asie* 8, 1995, pp.1~39.

(2) 언어학 및 문학 분야

언어학 및 문학에 관한 단행본 106권(28%), 논문 1272편(72%) 등 모두 378건이 DB화되었다(표 3). 장르별로 보면 시(16.7%), 소설(30.4%), 희곡(2.1%), 문학 일반(14.3%), 여행기(3.4%) 등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가 66.9%를 차지하여 한중일 세 지역의 언어학에 관한 연구(33.1%)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그러나 아직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시아 언어학회지』에 대한 DB 구축이 미완이기 때문에 실제 동아시아 언어학에 관한 연구의 비율은 이 수치보다 높다고 봐야 한다. 이밖에도 판본학이나 문서 복원 등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들(2.9%)이 있다. 한편 영화 각본, TV 드라마 대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기타(5%)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분야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일본의 경우에는 시(24건)와 소설(22건)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소설(88건)에 대한 연구가 시(22건)에 대한 연구 보다 두 배가 더 많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표 4). 전통 문학만 놓고 보자면 일본학의 경우, 대표적 시가집들인 만요슈(萬葉集),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등 시가 연구가 우세한데 비해, 중국학에서는 지괴 소설(志怪小說), 화본 소설(話本小說), 통속 소설 등 소설 장르에 관한 연구가 강세를 보인다.

〈표 3〉 지역별로 선호되었던 문학 및 언어학의 세부분야

언어학 및 문학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기타	총계
시	38(10.2%)	0(0%)	24(6.5%)	1(0.3%)	0(0%)	63(17%)
소설	88(23.7%)	5(1.3%)	22(5.9%)	0(0%)	0(0%)	115(31%)
희곡	7(1.9%)	0(0%)	1(0.3%)	0(0%)	0(0%)	8(2.2%)
문학일반	42(11.3%)	1(0.3%)	9(2.4%)	2(0.5%)	0(0%)	54(14.6%)
여행기	11(3%)	0(0%)	1(0.3%)	1(0.3%)	0(0%)	13(3.5%)
한국어	0(0%)	7(1.9%)	0(0%)	0(0%)	0(0%)	7(1.9%)
중국어	65(17.5%)	0(0%)	0(0%)	0(0%)	1(0.3%)	66(17.8%)
일본어	0(0%)	0(0%)	15(4%)	0(0%)	0(0%)	15(4%)
문헌학	8(2.2%)	0(0%)	1(0.3%)	2(0.5%)	0(0%)	11(3%)
기타	15(4%)	1(0.3%)	3(0.8%)	0(0%)	0(0%)	19(0%)
총계	274(73.9%)	14(3.8%)	76(20.5%)	6(1.6%)	1(0.3%)	371(100%)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되어지는 문학 장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나, 중국 문학에서는 시대변화와 장르변화가 밀접한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중국 문학사에서는 송대(宋代)를 거치면서 운문에서 산문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³⁴⁾ 이번 프랑수어권 DB에 대한 계량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뚜렷하게 감지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연구 중심이 운문에서 산문으로 급격하게 이동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시에 대한 연구는 선진(2

건), 진한(3건)을 시작으로 수당오대(11건)에서 정점에 이르지만 송요금원(2건)부터 명청(1건), 현대(3건) 등 고작 6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편이다. 하지만 소설에 관한 연구는 현대(42건)를 제외하면 명청대의 작품들에 관한 연구(30건)가 가장 많았고 위진남북조(4건), 송요금원(4건) 시대의 작품에 관한 연구도 약간 있었다. 언어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국어에 관한 연구가 65건으로 한국어(7건), 일본어(15건)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3) 역사 분야

역사연구 DB는 단행본 285권(38.8%), 논문 44.8편(61.2%)으로 모두 73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사(21.6%)나 사회경제사(23.5%)에 비해 사상문화사(36.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밖에 고고 문물(11.5%),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일반적 연구(2.5%), 젠더(gender) 연구(1.4%), 기타(1.8%)가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사에 관한 연구가 69.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사(25.3%), 한국사(2.9%) 순이다.

<표 4> 시대별로 선호되었던 역사학의 세부 분야

중국사								
시대	정치 외교사	사상 문화사	사회 경제사	역사 일반	고고 문물	젠더	기타	총계
선사	0 (0%)	0 (0%)	0 (0%)	0 (0%)	11 (2.2%)	0 (0%)	0 (0%)	11 (2.2%)
선진	1 (0.2%)	4 (0.8%)	0 (0%)	2 (0.4%)	18 (3.6%)	0 (0%)	0 (0%)	25 (5%)
진한	3 (0.6%)	5 (1%)	0 (0%)	1 (0.2%)	8 (1.6%)	0 (0%)	0 (0%)	17(3.4%)
위진 남북조	1 (0.2%)	10 (2%)	1 (0.2%)	0 (0%)	4 (0.8%)	0 (0%)	0 (0%)	16 (3.2%)
수당 오대	2 (0.4%)	15 (3%)	5 (1%)	0 (0%)	1 (0.2%)	0 (0%)	0 (0%)	23 (4.6%)
송요 금원	1 (0.2%)	11 (2.2%)	14 (2.8%)	1 (0.2%)	11 (2.2%)	0 (0%)	0 (0%)	38 (7.6%)
명청	23 (4.6%)	47 (9.5%)	24 (4.8%)	1 (0.2%)	7 (1.4%)	0 (0%)	2 (0.4%)	104 (20.9%)
근대	20 (4.0%)	20 (4.0%)	24 (4.8%)	0 (0%)	0 (0%)	2 (0.4%)	1 (0.2%)	67 (13.5%)
현대	51 (10.3%)	41 (8.2%)	47 (9.5%)	3 (0.6%)	3 (0.6%)	3 (0.6%)	5 (1%)	153 (30.8%)

34) 김학주, 『중국문화사』, 신아사, 1998, 44쪽; “흔히 중국 문화사를 말할 때면 시대와 그 시대에 가장 발달했던 문학 장르를 결부시켜 漢文, 唐詩, 宋詞, 元曲, 明清小說이라고 하는 것이다.”, 任昌淳, 『唐詩精解』, 1999, 8쪽.

통사	3 (0.6%)	18 (3.6%)	10 (2%)	4 (0.8%)	7 (1.4%)	1 (0.2%)	0 (0%)	43 (8.7%)
총계	105 (21.1%)	171 (34.4%)	125 (25.2%)	12 (2.4%)	70 (14.1%)	6 (1.2%)	8 (1.6%)	497 (100%)
한국사								
	정치외교사	사상문화사	사회경제사	역사일반	고고문물	총계		
선사	0 (0%)	0 (0%)	0 (0%)	0 (0%)	2 (9.5%)	2 (9.5%)		
부여삼한	0 (0%)	0 (0%)	0 (0%)	0 (0%)	2 (9.5%)	2 (9.5%)		
삼국	0 (0%)	0 (0%)	0 (0%)	0 (0%)	1 (4.8%)	1 (4.8%)		
고려	1 (4.8%)	0 (0%)	0 (0%)	0 (0%)	0 (0%)	1 (4.8%)		
조선	1 (4.8%)	4 (19%)	0 (0%)	1 (4.8%)	0 (0%)	6 (28.6%)		
근대	3 (14.3%)	1 (4.8%)	0 (0%)	0 (0%)	0 (0%)	4 (19%)		
현대	2 (9.5%)	1 (4.8%)	1 (4.8%)	0 (0%)	0 (0%)	4 (19%)		
통시대	0 (0%)	0 (0%)	0 (0%)	1 (4.8%)	0 (0%)	1 (4.8%)		
총계	7 (33.3%)	6 (28.6%)	1 (4.8%)	2 (9.5%)	5 (23.8%)	21 (100%)		
일본사								
	정치 외교사	사상 문화사	사회 경제사	역사 일반	고고 문물	젠더	기타	총계
선사	0 (0%)	0 (0%)	0 (0%)	0 (0%)	1 (0.5%)	0 (0%)	0 (0%)	1 (0.5%)
고대	4 (2.2%)	6 (3.3%)	3 (1.6%)	0 (0%)	1 (0.5%)	0 (0%)	0 (0%)	14 (7.7%)
중세	4 (2.2%)	3 (1.6%)	3 (1.6%)	1 (0.5%)	1 (0.5%)	0 (0%)	0 (0%)	12 (6.6%)
근세	4 (2.2%)	17 (9.3%)	11 (6%)	0 (0%)	1 (0.5%)	1 (0.5%)	0 (0%)	34 (18.6%)
근대	28 (15.3%)	49 (26.8%)	13 (7.1%)	0 (0%)	4 (2.2%)	1 (0.5%)	1 (0.5%)	96 (52.5%)
현대	4 (2.2%)	4 (2.2%)	8 (4.4%)	0 (0%)	0 (0%)	0 (0%)	1 (0.5%)	17 (9.3%)
통시대	0 (0%)	2 (1.1%)	0 (0%)	3 (1.6%)	0 (0%)	1 (0.5%)	3 (1.6%)	9 (4.9%)
총계	44 (24%)	81 (44.3%)	38 (20.8%)	4 (2.2%)	8 (4.4%)	3 (1.6%)	5 (2.7%)	183 (100%)

한편 역사 분야 연구도 앞서 문학연구에서 보던 바와 같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선호되는 세부 분야가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표 5>. 가장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중국의 예를 들자면, 자료의 제약 때문이었지만 선사시대와 선진시대는 고고학적 연구가 우세한 반면 사회경제사는 명청 시대에 급증하다가 현대에 와서 절정을 이룬다. 단 송요금원기는 예외적으로 그 전후 시기보다도 고고학적 연구가 풍부한데, 아마도 송대에 크게 발달한 요업(窯業)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상문화사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명청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명청대는 이전 시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사회의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문헌 및 물질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연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사와 특히 일본사의 경우, 다른 시기보다 근대사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의 경우, 정치외교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일본사에서는 사상문화사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5>. 아마도 프랑스어권 연구자들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주변 국가들의 역학 관계 속에 한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에 더 주목했던 반면에 일본사에 있어서는 근대화를 이끌었던 사상적 동력과 신문물 유입에 따른 전통 문화의 변용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풀이된다.

(4) 예술 분야

예술 분야의 DB는 모두 194건으로 단행본 48권(24.7%)과 146편(75.3%)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회화(33.5%)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16%), 영화(12.4%), 건축(14.4%), 공예(7.7%), 조각(5.7%), 예술 이론(4.1%), 음악(4.1%) 순이었다. 여기서 기타의 범주에 포함된 연구들은 중국의 경극(京劇), 일본의 노(能)처럼 공연예술 작품에 관한 연구이거나 무용, 사진, 만화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지역적으로 나뉘보면 중국 예술에 관한 연구가 63.4%로 가장 많고 일본 예술 연구는 그 절반 정도 된다(30.4%). 한국 예술에 관한 연구는 모두 7건(5.2%)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진한 편이다.

<표 5> 지역별로 선호되었던 예술의 세부 분야

예술 분야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총계
회화	44(23.2%)	4(2.1%)	17(8.9%)	0(0%)	65(34.2%)
조각	4(2.1%)	1(0.5%)	6(3.2%)	0(0%)	11(5.8%)
건축	17(8.9%)	2(1.1%)	8(4.2%)	1(0.5%)	28(14.7%)
공예	11(5.8%)	0(0%)	4(2.1%)	0(0%)	15(7.9%)
음악	3(1.6%)	0(0%)	5(2.6%)	0(0%)	8(4.2%)
예술이론	6(3.2%)	0(0%)	2(1.1%)	0(0%)	8(4.2%)
영화	22(11.6%)	1(0.5%)	1(0.5%)	0(0%)	24(12.6%)
기타	14(7.4%)	2(1.1%)	15(7.9%)	0(0%)	31(16.3%)
총계	121(63.7%)	10(5.3%)	58(30.5%)	1(0.5%)	190(100%)

시기별로 볼 때, 예술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회화 연구는 모두 마지막 전근대 사회, 즉 명청 시대와 근세(도쿠가와 막부)의 작품들에 관한 연구가 많았던 반면에 근대와 현대의 예술작품을 다룬 연구는 극히 적었다. 동아시아 전문 학술지의 성격상 어느 정도 역사성 있는 예술 작품들에 대한 연구만 게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영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국 영화에 대한 연구가 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에 일본영화에 관한 연구는 단 1건뿐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 또한 학술지의 성향에 따른 편향된 결과일 뿐이다.³⁵⁾ 전통 건축에 관한 연구는 중국의 경우, 명청 시대 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우세하다. 현존하는 전통 건축물의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최근인 명청대에 축조되었고 그만큼 현존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명청대 건축물이 주된 관심 대상이 되었다고 풀이된다. 예술 이론에 속하는 연구는 대부분 회화 이론, 즉 화론(畫論)에 관한 연구들로서, 이 또한 명청대의 화론이 중심적이다. 일본학에서는 예술이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동아시아학 예술론이 주로 중국의 화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V. 맺음말

그동안 국내 학계는 2차 대전 이후의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사에 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으나,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는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 논문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문사철 및 전통 예술에 관한 약 2천 건의 DB를 기반으로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 동향을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자료의 선정 기준과 분류의 기본 원칙들에 관해 기술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점(2017. 2. 28)까지의 작업 진척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단행본의 경우, 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지에 서평이 게재된 전문 학술 도서들을 주로 자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정되었는데, 모두 573권이 DB로 구축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간행된 동아시아 문사철 관련 전문 학술지로서 DB로 구축된 학술지는 모두 10종으로, 그 중 8종이 DB구축이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2종, 즉 『지팡구』, 『동아시아 언어학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이 두 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DB화된 논문은 모두 1,349편이다.

필자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DB가 얼마만큼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복스 엔그램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만일 소규모 DB인 〈프로젝트〉 DB의 시간적 변화 패턴이 빅데이터 기반의 대조군의 시간적 변화 패턴과 유사하다면 전자가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설

35) 중국 영화에 대한 연구 논문이 홍콩에 본부를 둔 『神州展望』에서 자주 게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듯하다. 그렇지만 *Cahier du cinéma* 같은 프랑스의 영화 비평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에 입각해서 몇 가지 도표를 비교해 본 결과, <프로젝트> DB와 빅데이터 DB의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패턴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DB를 통해 얻은 학계의 지형 변화와 시기에 따른 학술 생산물 산출량의 변화를 근거로 20세기 프랑스 동아시아학 연구사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 시기(제Ⅰ기)는 프랑스 중국학이 구미 중국학의 메카였던 시기로서, 1901부터 2차 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중국학을 선도했던 학자는 에두아르드 사반느와 소위 '파리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던 그의 제자들, 즉 폴 펠리오, 앙리 마스페로, 마르셀 그라네 등이다. 그러나 파리의 전성기를 이끌어 갔던 인사들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모두 사망하자, 프랑스 동아시아학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이 시기를 '침체기(제Ⅱ기)'로 보았다. 1945년 종전부터 프랑스와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는 1964년까지는 일종의 준비기(제Ⅲ기)로서, 당시 프랑스 동아시아학계를 이끌어 갔던 사람은 이방인들이었던 폴 드미에빌과 에티엔 발라즈인데, 이들은 무엇보다 후진 양성에 전력을 다했다. 제Ⅳ기(발전기)는 1964년 프랑스-중국 국교 정상화로부터 1982년까지로 중국학의 저변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기간에 양성된 연구 인력들은 20세기 후반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제Ⅴ기는 198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1982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학술 환경을 호전시켰다. 바로 그 해에 창간된 『漢學研究』, 『극동-극서』 등 중국학 전문 학술지들은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 연구의 양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 학술지 창간은 90년대에도 이어졌는데, 1993년에는 파리와 도쿄에서 동시에 창간된 『지팡구』와 『에비스(惠比壽 : Ebisu)』는 프랑스어권에서 일본학이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직까지 프랑스어권에는 이렇다 할 한국학 전문 학술지가 없는데, 향후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 전문 학술지 창간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랑스어권에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단 한 종도 없다는 점은 현재 프랑스어권에서 한국학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얇은 연구층, 낮은 인지도, 재정 지원의 부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한국학 관련 전문 학술지의 부재를 낳았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알고자 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³⁶⁾ 한국 학계와 정부는 지금 프랑스어권에 불고 있는 한류문화를 학문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이다.

<프로젝트>의 프랑스어권 DB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학이나 한국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영어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한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학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과 영어권 국가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처럼 프랑스어권에서의 한국학의 저조한 현상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근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프랑스어권의 동아시아학은 전반적으로 동시대 연구에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고대로 갈수록 연구 성과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연구할 대상도 풍부하면서 동시에 현안과 직결되는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학과 한국학에서는 현대와 대비되는 가까운 전근대 사회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일본학

36) Quillet Lucile, "Apprendre le coréen: une mode inutile selon des universitaires", *Le Figaro étudiant*, 2013. 5. 13.

에서는 근대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각 분야 별로 살펴보면 먼저 철학 및 종교에서 인류학의 범주에 속한 연구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전통이다. 한편 종교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불교 연구가 가장 많지만 연구 대상 지역에 따라 중점적으로 연구되는 종교가 달랐다. 중국학의 경우, 도교가 특히 많이 연구되었으며 한국학은 무속 신앙이, 일본학에서는 불교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유교의 경우, 철학적 내용에 관한 연구보다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문학과 언어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학에 관한 연구가 언어학에 관한 연구보다 풍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시아 언어학회지』에 대한 DB 구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동아시아 언어학에 관한 연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소설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중국학의 경우, 송대를 기점으로 운문에서 산문으로 연구 주제가 옮겨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소설에 관한 연구가 중국학에서 우세한 반면 시는 일본학에서 강세를 보였다. 역사학에서는 사상문화사에 관한 연구가 정치외교사, 사회경제사보다 풍부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중국사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시기적으로는 현대사가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사의 경우는 근대사에 관한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마도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의 사상적 배경과 신문물 유입에 따른 전통 문화의 변용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정된다. 예술 분야의 경우, 전통 회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고 시기적으로는 모두 마지막 전근대 사회, 즉 명청 시대와 도쿠가와 막부 시대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예술 이론에 속하는 연구는 대부분 화론에 관한 연구들로서, 명청대의 화론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 글은 원래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계의 전반적인 양상과 동향을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한 번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실시했던 계량적 분석방법만으로는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독특한 학문 전통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인한다. 정성적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 정량분석이란 영원히 미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20세기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특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대열, 「서구의 최근 도교 연구 산책」, 『종교문화비평』 4, 2003.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연구」, 『사회과학연구』 6, 1999.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8.
 노시훈, 「프랑스 문헌에 나타난 한국(1600~1999)」, 『한국프랑스학논집』 27, 1999.

- 마리-클레르 베르베르(저), 박상수(역), 『중국현대사: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심산, 2009.
- 문상호, 「엔그램 뷰어를 이용한 인문학의 빅데이터 사례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 6, 2015.
- 朴尙洙, 「漢學에서 社會科學으로 - 프랑스의 근현대 중국사학」, 『中國學報』, 48, 2003.
- 박성진, 「프랑스어권 동아시아학의 여정,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 이해와 공존을 향한 오디세이아」, 『동양학』 64, 2016.
- 버나드 로 몽고메리(저), 송영조(역), 『전쟁의 역사』, 책세상, 2004.
- 沈載勳, 「구미 동아시아학의 발전과 그 수용을 위한 한국판 DB 구축」, 『大同文化研究』 87, 2014.
- 알랭 루(저), 정철웅(역), 『20세기 중국사: 제국의 몰락에서 강대국의 탄생까지』, 책과 함께, 2007.
- 에레즈 에이든·장바티스트 미셸(저), 김재중(역), 『빅데이터 인문학』, 사계절, 2013.
- 李東潤, 「프랑스에 있어서의 東洋學의 발달」, 『프랑스인의 智慧』, 正音社, 1980.
- 任昌淳, 『唐詩精解』, 1999.
- 정용찬,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정철웅, 「역사 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과제」, 『현상과 인식』 72, 1997.
- 趙載德, 「프랑스의 “東洋學” 發展에 關한 一考察」, 『仁荷史學』 2, 1994.
- 천광싱·첸융샹(저), 白池雲(역),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추세 속의 학술생산」, 『창작과비평』 32, 2004.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홍성민, 「지식과 국제정치: 한국의 민주화와 학문의 과제」, 『지식과 국제정치』, 한울아카데미, 2008.
- Diény, Jean-Pierre, “Paul Demiéville(1894~1979)”,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4e section, sciences historiques et philologiques. Livret 2. Rapports sur les conférences des années 1981~1982 et 1982~1983, 1985.*
- Harris, Marvin,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EMIC/ETIC Distinc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5.
- Hirsch, Thomas, “Historiographie et histoire disciplinaire. Marcel Granet et les sciences sociales”, *L'Atelier du Centre de recherches historiques* 7, 2011.
- Paul-David, Madeleine, “Paul Demiéville”, *Arts asiatiques* 36, 1981.
- Quillet Lucile, Apprendre le coréen: une mode inutile selon des universitaires, *Le Figaro étudiant*, 2013. 5. 13.
- Revel Jaques(저), 주경철(역), 「역사와 사회과학: 불안정한 만남(L'Histoire et les Sciences Sociales: une confrontation instable)」, 『西洋史研究』, 15.
- Rouillon, Vincent, “Google et les bibliothèques”, *Complément de la Lettre d'Echanges*, 25, 2009.
- Seidel, Anna, “Taoïsme : Religion non-officielle de la Chine”, *Cahiers d'Extrême-Asie*, 8, 1995.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문헌) DB 구축〉사이트

<http://ec2-52-78-36-41.ap-northeast-2.compute.amazonaws.com/>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6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22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7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opography of the East Asian Studies in the 20th Century in France:
Focusing on 〈East Asian Studies in Overseas Studies (DB) Project〉**

Park, Seongjin*

Korean scholar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French school on the East Asian Studies after the World War II. But 〈East Asian Studies in Overseas Studies (DB) Project〉 gave us an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academic materials on East Asi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is paper evaluates the research trends of French speaker on the East Asian studies through quantitative method based on about 2,000 DBs. First, I used a big data-based *book engram viewer* program recently developed by Google to verify how much of the DB built through the 〈project〉 reflects the trend of 20th-century French-speaking East Asian studies. This is because if the time-varying pattern of the small DB project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trol data set of the big data-based control, it is determined that the former fully reflects the current trend. Based on this hypothesis, it is found that the patterns of the 〈project〉 DB and the big data DB in terms of time-series changes are not exactly the same, but they are similar to each other. It means trustworthy. On the other hand, in this paper, based on the changes of the academic geography and the output of academic products during 20 century, I tried to classify the periods in the history of french research on East Asian Studies since 190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rench database of 〈Project〉, the Chinese studies was overwhelmingly superior to that of Japanese studies or Korean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of East Asian Studies in the French language was most interested in contemporary research in general, and it tended to decrease in research on more ancient periods. It is natural to have more interest in research subjects related with contemporary age. Interestingly, Chinese studies and Korean Studies are interested in a near pre-modern society as opposed to contemporary age, while Japanese studies are interested in modern society. Perhaps the interest of French scholar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Japan, which has “successfully” modernized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is presumed to have resulted in this. It is characteristic of the fact that there are abundant studies

* Visiting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 the category of anthropology in philosophy and religion, which is a tradition of French East Asian studies. Wherea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ligion researches have the most Buddhist studies as a whole, but the religions that are mainly studied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tudy area. In the case of Chinese studies, Taoism has been especially studied, but shamanism in Korean studies and Buddhism in Japanese studies. In the case of Confucianism, research o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ideology was the mainstream rather than the study of the philosophical contents. In literature and linguistics studies, literature studies are more abundant than linguistics studies in general. But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B on East Asian linguistics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a study of novels is more abundant than a study of poetry. In the case of Chinese studies, there was a tendency that research topics were shifted from verse to prose, starting from the Song dynasty. Meanwhile locally, the study of novels was dominant in Chinese studies, but the poetry was strong in Japanese studies. In the field of history, there are abundant researches on the intellectual or cultural history rather than politico-diplomatic history and socio-economic history. On the other hand, it is noteworthy that Japan's history of modern history is so high that modern studies tend to be more than half of studies on history of Japan. It is presumed that this result could have been derived from the interest in the power that successfully led to modernization and the interest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culture by influx of new culture. In the field of art, research on traditional paintings took the majority, and all of the studies in the period of the last pre-modern society, namely, the Ming-Qing Dynasties and the Tokugawa Shogunate. Finally, most of the studies belonging to art theory are the aesthetics in the Ming-Qing Dynasties.

[Key Words] East Asia Studies, French school, Big data, sinology, Korean study, Japanese study